

'기억'이라는 렌즈에 포착된 서울정경 50년전 서울 모습 사실적으로 묘사

— 「내가 자란 서울」 펴낸 아동문학가 어효선씨

이 책 그 사람

그의 기억의 각도는 흥인지문, 숭례문, 돈의문, 숙정문을 잇는 四大門 안에 머문다. 두루뭉수리, 전철이

이어지고 같은 지역번호의 전화를 집에 두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수도권'에 포함될 수 있는 시절이 아닌, 정확하게 '입구'와 '출구'를 상징하는 대문을 소유하고 있었던 시절의 '京城府' 즉 지금의 '서울'이 아동문학가 어효선씨(65)가 자라난 곳이다.

그가 최근에 펴낸 「내가 자란 서울」(대원사)은, "분명히 무엇인가 사라지고 있는 장소"인 서울의 50년전 모습을 살아있는 사진처럼 생생히 재생시키고 있다.

"지금의 서울은 마치 사방팔방을 온통 뒤집어 놓을 것같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고 말하는 서울도박이 어효선씨에게, 자신의 10대를 전후한 그 시절의 풍물은 해방 후에도 꽤 오랜동안 별다른 변화없이 "제자리에 있었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기억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이번 작업을 '무사히' 끝낼 수 있었다고.

더욱이 회고조의 개인적 감상을 배제시킨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묘사가 더 자료적 가치가 있다는 그의 '신념'을 유지시키는 데에도, 당시의 이 '완만한' 변화는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원래 긴 글은 쓰기 싫어한다고 고백하는 그가 87년부터 시작, 3년간에 걸친 「소년」誌 연재를 계속한 이유는, "워낙 서울 사람이 귀해서, 진짜 서울을 기억해서 보여줄 수 있는 '렌즈' 역할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당시 일상생활의 단면들을 되도록 쉽게 써내려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독자에게는 의외로 어려운 소재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잘 사용하지 않는 말들이 읽다보면 걸리기도 할 것이고, 자세히 보면 전체적인 흐름이 이야기 형식을 띄고 있기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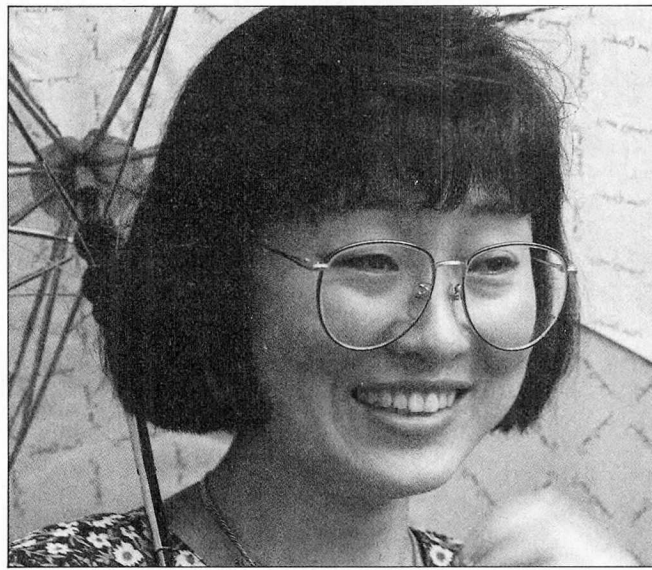
한편 이 책의 현장감을 더욱 부각시켜주는데 한 몫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곳곳에 삽입된 원로 사진작가 한영수씨(57)의 흑백 사진들. 글의 배경이 되고 있는 40년대보다 꼭 10년 후의 정경들을 담은 사진들임에도 불구하고 신기할 정도로 잘 어우러지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아마도 사람 살아가는 모습을 담은 「삶」이라는 사진집에 수록되어 있는 작품들이기 때문인 듯.

개천과 낮은 언덕, 다리가 유난히 많다고 느껴지던 서울, 지금의 중구와 종로구가 전부였던 서울 인사동 골목에서 태어난 그는 어린시절, 무던히도 "동네를 쏘다녔다." 그래서 이 책에는 그가 보았던 어른들 — 화장품장수와 인조견장수, 물장수와 된장장수 — 과 구멍가게, 호떡집, 기름집, 빨래터, 유난히 좁다랗던 흠목길 등이 등장하고, 책방과 골동품가게에 얽힌 학창시절의 추억과, 서울 '뽕' 특성, 광나루, 마포, 세검정 등지로의 '원정기'가 담겨있다.

이번의 '외도'에서 이제 다시 동요로 돌아가야겠다고 말하는 그는, 59년 데뷔 이래 그동안 5백여편에 이르는 동화와 동시를 써왔다. 그에게 아동문학은 "안 바뀔 부분"이라고.

그는 20살때부터 매고 다니던 나비넥타이를 아직도 즐겨하고 다닌다.

— 정소연 기자



'청년 인기'의 숨겨진 진실찾기 치유의 손끝으로 범죄명암 다뤄

— 추리소설 「저린 손끝」의 작가 권경희씨

이 책 그 사람

숨은 그림 찾기. 그것은 때로 번잡한 일거리들에 짓눌려 있던 우리의 일상을 곧추세워 다시금 '살맛'을 느끼게 하는 한모금 청량제의 역할을 넉넉히 해낼 때가 있다.

우리가 무수한 읽을거리 가운데서 선풍 추리소설을 골라 잡을 때의 기대 또한 이와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이다. 작가가 깔아 놓은 伏線을 좇아가며 독자 스스로가 사건 해결의 주제로 몰입하게 되는 흥미와 쾌감 같은 것. 그래서 추리소설을 읽기에는 후덥지근한 여름이 오히려 체격인지도 모른다. 더위가 슬그머니 다가드는 孟夏에 출간된 제1회 김내성추리문학상 당선작인 권경희씨(30·한국관광공사 홍보부)의 「저린 손끝」은 그러나 추리소설에서 기대되는 이러한 일반적인 재미 이상의 것을 우리에게 제공해준다.

유순하고 무던해 보이는 인상만큼이나 부르키 하냥 편한 그의 이름이 낯익은 우리들의 누이를 연상시키듯 이 작품의 배경도, 사건의 내용도 철저히 '우리것'이라는 현실성의 공유가 그것이다. 아울러 그 현실을 섬세하고 치밀한, 그러나 더없이 큰 애정이 배어있는 '손끝'으로 어루만지듯 그려내고 있는 따뜻한 서정성은 추리소설에 대한 우리의 통속적 이해를 여지없이 무너뜨리는 것이다.

"학창시절부터 수학이나 물리 같은 과목들을 좋아했었어요. 불확실성이나 가상이 없는, 원리원칙이 철저히 지켜지는 그 세계가 엄청나게 매력적이었거든요."

그 어떤 문학장르보다 치밀한 구성과

과학적인 논리를 요구하는 추리문학에 손을 대게 된 동기를 그는 여기에서부터 찾는다.

한 마을에 대를 이어 내려오는 끈질긴 狂氣로 상징되는 우리민족의 수난과 굴절의 역사에 대한 깊은 천착과 애정, 세사람이 살해되는 범죄를 끔직한 죄악으로 단죄하기에 앞서 그릇된 교육이 한 인간의 삶에 얼마나 오래고 질긴 상흔을 남기는가를 밝히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이 작품 역시 그의 원리원칙이 철저히 지켜지는 세계에 대한 동경과 소망의 표현에 다름아닐 것이다. 결국 그에게 있어 범죄란 개별적 존재인 특정한 죄악이라기보다는 궁극적인 의미에서 범죄의 가능성을 항상적으로 배태하고 있는 사회악의 거대한 덩어리의 돌출된 일부분일 뿐이다. 때문에 그 범죄의 해결 또한 개별악의 단죄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그것은 사회악의 근원적인 제거를 통해서만 가능해지는 우리들 공동의 과제라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이 작품의 주인공이 초인적인 수사능력을 지닌 설록 홈즈류의 사건해결사가 아니라 범죄의 언저리에서 함께 고뇌하고 갈등을 겪으면서 스스로도 변화하고 성숙해지는 '청년 인기' 일 수 밖에 없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가장 치열하고 예민한, 그러나 더없이 따뜻한 더듬이로 우리사회 요소요소를 헤집고 다니며 독자와 더불어 '숨은 진실 찾기'를 벌여나갈 '민기'는 "우리나라와 같은 상황 속에서 추리문학이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 늘 생각하겠다"며 이제 막 추리문학계로 당찬 첫발을 내딛은 작가 권경희씨 바로 그 자신인지도 모른다.

— 박남정 기자



스포츠와 시의 새로운 접목 시도 골프장의 정경과 서정 시로 그려

— '골프시집' 「파란 잔디 하얀 공」 펴낸 金守經 교수

이 책 그 사람

거금의 회원권, 재벌과 연관된 허가문제의 말썽 등으로 서민들의 눈에 그저 소수 '선민'들의 전유물 정도로밖에는 달리 생각할 방법이 없는 스포츠 골프.

이렇듯 특정층의 '최고급 놀이'로만 인식되기 십상인 골프를 다룬 이색적인 시집이 최근 서점가에 선을 보여 화제가 되고 있다. 김수경씨(53)가 상재한 「파란 잔디 하얀 꿈」(고려원)이 바로 그것.

'드라이버 샷' '칩핑' '퍼팅' 등의 낯선 전문용어가 수없이 등장하는 이 시집은 골프장 주변의 정경과 함께 삶이 스포츠와 어떤 고리로 연결되고 있는가에 대한 시적 성찰을 담고 있다.

핸디 20으로 8년 남짓한 경력을 지닌 그의 본업은 골프전문가도 시인도 아닌 의사(서울대 치대교수). 바쁜 일과 때문에 필드를 자주 찾는 편은 아니지만 강의와 외래진료에 시달리다보면 탁트인 골프장에 대한 갈증이 정말 간절하단다.

“답답한 강의실과 진료실을 벗어나서, 푸른 잔디에 우뚝 서면 정말 흥분이 되곤 합니다. 그런데 아직 국내에선 이 운동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고 봐요. 외국의 경우엔 누구나 쉽게 즐기는 그런 스포츠거든요. 그러니까 필드도 우리처럼 잘 정돈되어 있지 않아요. 정신적, 육체적인 건강에 골프만큼 좋은 스포츠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이번 시집을 낸 것도 그런 고정관념을 탈피하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골프시’를 쓰게 된 배경설명이다. 그런

그가 시와 인연을 맺은 계기는 미당 서정주의 장남과 동창생으로 미당의 곁을 자주 찾았기 때문이었다. 미당의 추천으로 늦깎이 시인이 되어 문단의 문을 두드렸다. 이미 4권의 시집과 수필집을 펴낸 바 있는 그는 “죽음을 늘 대하는 직업의 특성 탓에 여가선용에 상당한 애정을 갖게 된다”고 한다. 그림과 시 그리고 골프 외에도 15년간 다져온 테니스 솜씨 역시 일품인 그의 또 다른 취미는 도예.

“어쩌다 인사동에 들러보면 도자기 값이 너무 비싸더군요. 도무지 살 엄두가 안나더라구요. 그래서 경기도 광주 등지의 도요지를 찾아다니면서 도예를 익혔습니다. 치과에서 만드는 ‘도치’(치아의 모형틀)와 무관하지도 않고 해서요.”

누구에게나 시간은 소중하고 모자라는 것임엔 틀림없다. 하지만 그 일정한 양의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서 시간에 얼마이기도, 시간을 요리하기도 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점에서 김교수는 시간을 잘 요리하는 데는 일가견이 있는 듯싶다.

“현대 사회의 특성은 전문화에 있지 않을까요. 시의 경우도 하구헌날 같은 소재에 매달리기 보다는 다른 쪽을 향한 눈독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교육, 건강, 여행 등 자신의 생활주변에 대한 시를 쓸 계획이라는 김교수는 또 다른 일거리를 찾고 있는 듯했다.

— 최태원 기자



팔순 할아버지의 눈물겨운 홀로서기 노인정책 · 兩性교육 필요 느껴

— 「할아버지의 부역」 번역한 엄은옥씨

이 책 그 사람

83세의 할아버지가 홀로되었다. 1남4녀의 장성한 자식들이 있으나 제각각 아버지를 모실 수 없는

딱한 사정들이 있다. 이미 손주를 보고 3대가 함께 살거나 파산을 해버렸거나 밤낮없이 일에 묻혀 독신으로 산다거나 하는 이유 등으로. 또 아버지 역시 그런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 아내와 60년을 해로해온 古屋에서 ‘홀로서기’를 선언한다. 핵가족화, 인구의 고령화 등으로 ‘노인문제’가 더이상 외면할 수 없는 사회문제로 등장한 우리의 현실을 반증이라도 하듯 일본사회 노인문제의 한 단면을 보여준 번역서 「할아버지의 부역」(사하시 게이조 지음, 여성신문사 刊)이 서점가에 잔잔한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어릴때부터 성역할분담으로 인해 부역일에 철저히 무지하며, 또 알고지도 하지 않았던 아버지, 셋째딸인 저자는 그 아버지가 얼마없이 혼자 살아갈 수 있도록 밥짓기와 청소 등 일의 순서와 방법을 커다랗게 적어 해당장소에 붙여놓고는 군대식 특별훈련을 시킨다. 너무 엄격하고 지나치다 싶지만 기본부터 철저히 하지 않으면 아버지는 곧 풀어져 대충대충 하게 되고, 그러면 외로움에 노인병에 사는 의욕조차 잃어버릴 수 있음을 경계, 저자는 딸로서의 센티멘털리즘조차 용납하지 않는다. 처음 1년간만 어쨌든 혼자 해보겠다는 아버지는 4년을 훌륭히 살아왔고, 좀더 혼자서 자유롭게 꾸러가고 싶다는 의욕까지 보이게 됐다.

쇠약해진 건강을 빼고는 완전히 ‘홀로선’ 모습을 보여준다.

“남편의 직장일로 일본에서 3년 정도 산 적이 있는데, 일본의 가정에서 이상한 모습을 목격했어요. 시부모와 한 울타리에 살면서도 주말에 한번 외식하는 것 빼고는 식사를 따로 해결하는 거였어요. 또 부모의 집인 경우 월세를 꼬박꼬박 낸단거.”

엄은옥(46·주부) 씨가 이해할 수 없는 표정을 짓자 이웃 일본아주머니가 이책을 권하더라고, 일본의 가족사회를 이해하는데 보탬이 될 거라면서, 귀국후 엄씨가 또한번 놀란 것은 그 3년 사이에 우리나라에도 일본과 같은 현상이 현실로 다가선 점이다. 아파트 바로 옆동에 시아버지 혼자 살게 하는 이웃이 벌써 생겨났던 것.

“친정·시집부모가 모두 70, 80대에 걸쳐있고, 자신들의 노후준비도 서서히 계획해야 하는 제 또래 친구들이 정말 실감하며 읽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번역의 보람이 있다는 그는 우리나라에도 머잖아 일본처럼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실버산업’이란 말이 낫설지 않아질 것이라고 예견한다. 그러나 이같은 현실에서도 노인복지문제에 별관심을 내보이지 않는 정책이 안타까울 뿐이라고.

“이 책에서 보면 어릴 때부터 역할분담을 시켜놓았기 때문에 남자들이 가사일에 혼란받지 못했고, 그 부분에 무능해진 것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양성적인 교육’이 왜 필요한지 알 수 있는 거지요.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남자들이 많이 보았음 좋겠어요.”

— 정혜옥 기자